

경찰 출석요구 문자 진짜야? 가짜야?

경찰 사칭 '스미싱 문자' 진위 여부 혼란

민원인 "문자메시지 대신 문서로 보내야"

휴대 전화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가 왔다면 클릭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진짜 경찰관이 보낸 것인지, 경찰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기법) 사기 문자인지 구별이 불가능해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찰이 보내는 문자는 일정

서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는 물론 경찰관마다 내용이 달라 민원인들이 진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각 경찰서 경찰들은 원칙적으로 등기 우편을 통해 해당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있지만 편의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26일 광주·전남 각 경찰서에 따르

면 경찰들은 '김○○님, ××경찰서에 근무하는 ○○○수사관입니다. 사건 번호 2013-0000호로 접수된 ○○ 사건 관련 문의할 일이 있으니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형식은 없지만 편의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하는 일이 많다는 게 경찰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진짜 경찰이 보낸 출석 요구 문자메시지와 스미싱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김모(30)씨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순천경찰서 ○○○ 님 사건번호(13-093157) 관련 긴급 출석요구서 내용확인 sc-police.co.kr'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김씨는 문자메시지를 클릭하지 않는 대신, 순천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스미싱' 문자메시지임을 확인했다.

김씨는 "일반인이 '스미싱'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며 "경찰들이 등기우편으로만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 '스미싱' 피해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들의 편의주의가 '스미싱'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경찰들이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

고 있다.

광주경찰서 A경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관련자에겐 등기 우편이나 직접 찾아가 출석요구서를 건네주는데, 대부분은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우리가 봐도 헷갈리는데, 일반인이 보면 오죽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경찰은 또 "사건 관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땐 반드시 담당 경찰의 이름을 기재한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수상한 메시지를 받았을 땐 경찰서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독감 예방주사, 어른들도 아파요

26일 광주시 북구 서석동 동구청사 2층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동구보건소는 다음달 4일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전 송전탑 공사 전국 곳곳서 반발

주민들 "전자파가 건강 해친다" 지중화 요구

문형수(고려고 진학부장) 광주시 진학부장협의회장은 "실제 수능에서는 표준점수가 떨어진 수학B형의 경우 더욱 어렵게 출제되고, 어렵게 출제된 영어 B형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대신 A형의 난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9월 모의평가 결과는 27일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들은 대부분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건강을 해친다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맞서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진도·해남군의 경우 한전이 14.5km

에 이르는 154kV 송전탑을 오는 11월에 착공해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지만 진도군이 지중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해남군도 가세해 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른 명랑대교 구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26일 한전 등에 따르면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은 밀양을 비롯해 전·남북, 충남, 울산, 경기, 경북,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과학대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특별과정 www.cntu.ac.kr

성인학습자 모집

전남과학대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특별과정이란?

급변하는 사회 속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능력 향상이나 취·창업을 꿈꾸는 일반 성인(만 23세이상 혹은 재직자)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의장을 열어주는 사업입니다. 10기자의 다양한 무료 특별 강좌를 통하여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함으로서 성인학습자에게 제2의 도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특 전

- ▶ 교육비, 실습비 완전 무료
- ▶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 ▶ 취업알선, 본교 입학시 소정학점인정과 장학혜택

지원자격

- ▶ 만 23세 이상 미취업자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 만 23세 이상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

모집기간

▶ 2013년 9월 1일 ~ 10월 1일 (정원내 선착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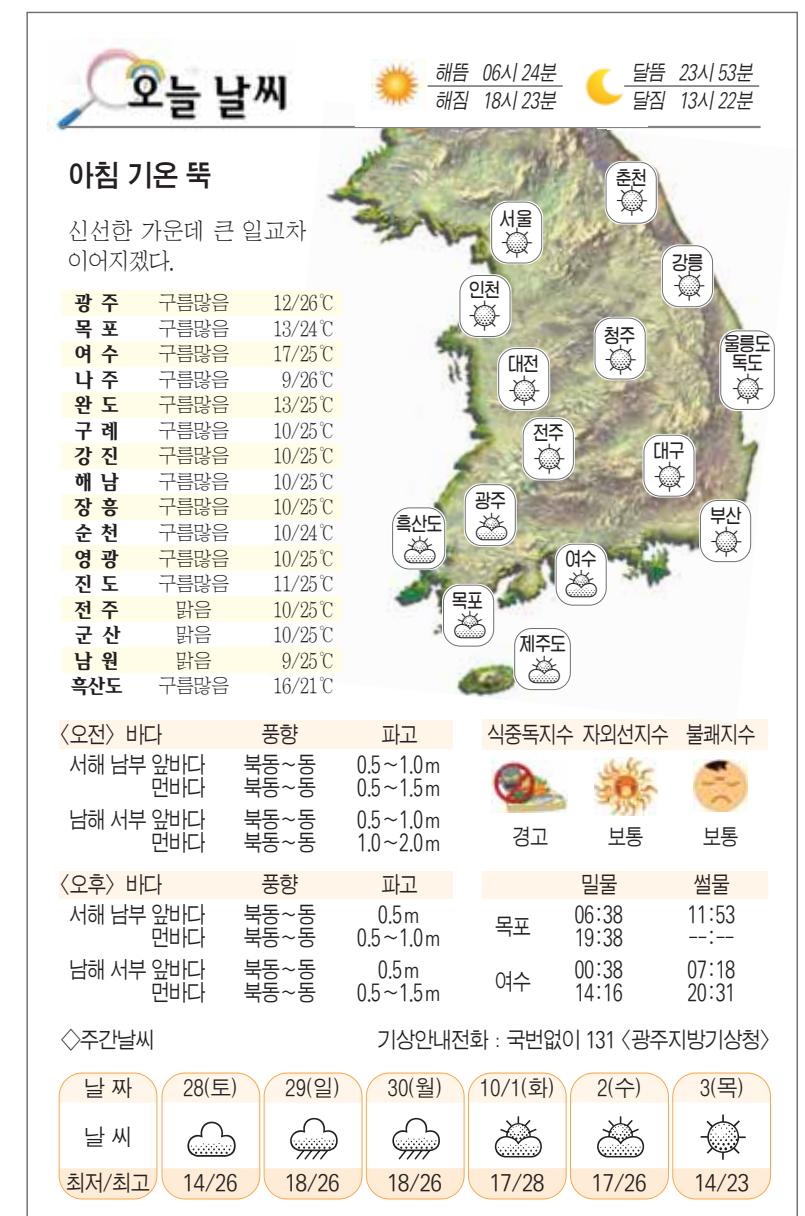
특별과정 요약

프로그램명	모집대상	상담교수	교육기간	모집인원(명)	교육장소
귀농 귀촌형 농업인 양성과정		김철홍 (010-3012-9904)	13. 10. 2 ~ 13. 12. 4 (수) 10주, 30시간 10:00 ~ 13:00	25	남부대학교
도시 원예사 양성과정			13. 10. 2 ~ 13. 12. 4 (수) 10주, 30시간 14:00 ~ 17:00	25	남부대학교
지게차 운전과정	23세	이영환 (010-3629-4297)	13. 10. 5 ~ 13. 12. 7 (토) 10주, 30시간 9:30 ~ 12:30	25	전남과학대학교 자동차실습장
용접인력 양성과정			13. 10. 5 ~ 13. 12. 7 (토) 10주, 30시간 9:30 ~ 12:30	25	전남과학대학교 자동차실습장
발판리사 양성과정	23세	국지연 (010-5485-2991)	13. 10. 5 ~ 13. 12. 7 (토) 10주, 30시간 9:00 ~ 12:00	25	남부대학교
네일아티스트 양성과정	성인		13. 10. 4 ~ 13. 12. 6(금) 10주, 30시간 9:00 ~ 12:00	25	남부대학교
커피지도사 2급과정	학습자	양웅식 (010-3342-3361)	13. 10. 20 ~ 13. 12. 8(일) 8주, 24시간 13:00 ~ 16:00	25	아이콘 리운지바
우리술 카테일조주 전문가 양성과정			13. 10. 20 ~ 13. 12. 8(일) 8주, 24시간 16:00 ~ 19:00	25	아이콘 리운지바
구을으로 배우는 반주법		구제창 (010-2720-5632)	13. 10. 5 ~ 13. 12. 7 (토) 10주, 30시간 15:00 ~ 18:00	25	전남과학대학교
유아 음악놀이 지도법			13. 10. 5 ~ 13. 12. 7 (토) 10주, 30시간 15:00 ~ 18:00	25	전남과학대학교
합 계					250

문의 061-360-5348(평생학습 지원센터), 010-3348-7858(평생학습 행정팀)

승인 교육기관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세계로 앞서가는
www.leagri.or.kr
안내: http://www.leagri.or.kr



광주시, 취약계층 9만여명에 무료 독감 예방접종

취약 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실시된다.

광주시는 65세 이상 노인,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9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접종 당일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하며 다음달 9일(한글날)과 주말 등 휴일에는 접종을 하지 않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전남 학생 10명 중 1명꼴 '흡연'

중·고교생 현황 자료... 10명 중 2명은 '음주'

광주와 전남지역 중·고교생은 10명 중 1명꼴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술은 10명에 2명꼴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중·고등 학생 음주·흡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흡연율의 경우 광주는 12%, 전남은 13%였다.

음주율은 광주의 경우 2008년 20.9%에서 2012년 16.2%로 낮아졌고 전남은 2008년 23.3%에서 2012년 20.6%로 감소했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